제9강 역(易)의 세계 Ⅱ

(1교시)

「계사하」에 “역을 지은 자는 우환(憂患)이 있었을 것이다”라 했다. 이것은 문왕이 유리라는 곳에 7년 동안 유폐되어 있을 때 역의 사(辭)를 지었다는 이야기와 통한다.
易의 우환의식(憂患意識) 때문에 易에서는 신중함을 중요한 덕목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만사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 易의 가르침이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輕擧妄動] 이야말로 易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

십익을 공자가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이설이 많다. “공자께서 만년에 역을 사랑하여 위편(韋編)이 세 번이나 끊어졌다.”(『사기』「공자세가」) “내 오십이 되어 역을 배운다면 큰 허물[大過]이 없을 것이다.”(『논어』「술이」) 같은 말은 공자가 십익을 지었다는 설을 지지해 준다. 공영달도 이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의』의 구절들에 대해서는 이설(異說)이 많아 논쟁거리가 된다. 십익 중에서 단전 상하와 상전 상하는 『춘추』『논어』의 문장과 유사점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단상 두 전만큼은 공자가 지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계사 상하와 문언전은 『맹자』『중용』 등과 유사점이 많으며, 또 서괘전, 설괘전, 잡괘전은 한초의 문장으로 보이며, 내용상으로도 나중의 저작임이 틀림없다. 때문에 십익은 한꺼번에 지어진 것이 아니라 공자 시대에 단전 상하와 상전 상하가, 전국 시대에 계사 상하와 문언전이 그리고 한초에 서괘전, 설괘전, 잡괘전은 진한 시대를 거치면서 씌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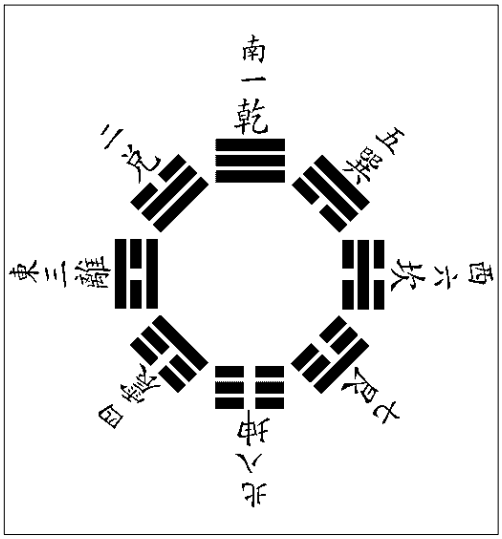
역의 구조는 “역유태극 시생양의 양의생사상 사상생팔괘(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라는 유명한 구절에 입각해 이해된다.
여기에서 易과 태극(太極)의 개념이 문제가 된다. 태극을 원기(元氣)로 볼 경우 역과 태극의 관계는 실재의 표현과 실재 자체의 관계가 된다. 즉 실재인 원기가 현상세계에 표현되는 것이 역이 된다. 그리고 양의(즉 음기와 양기)는 원기가 두 기로 갈라지는 것이고, 이하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와 달리 질료와 형상을 구분하는 논법을 구사한다면, 태극은 기가 아니라 기의 이법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역은 기화(氣化)이고 태극은 기화의 이법이다. 그래서 기화가 단순한 카오스적 생성이 아니게 된다. 앞의 일원론적 해석과 뒤의 이원론적 해석은 큰 차이를 보인다. 물론 이원론적 구분의 경우에도 이법 자체를 초월적으로 보는가(또 초월성의 정도는 어디까지인가), 아니면 내재적으로 보는가의 문제도 있다.

이원론적으로 볼 때 ‘음기’와 ‘양기’는 두 실체가 아니라 한 실체의 두 속성이 된다. 음과 양은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것들의 변화의 방식이다. 사상, 팔괘도 마찬가지이다. 이럴 경우 괘란 어떤 사태를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사태의 구조를 가리킨다고, 더 정확히는 디아그람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원기에 입각한 해석이 사실에 더 가까울 것으로 보이나, 철학적으로는 이원론

www.artnstudy.com

적 입장이 더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 때에 철저한 내재성의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팔괘의 구조



각 괘는 자연현상과 대응한다. 그러나 이 때의 천, 택, … 등은 자연현상 자체를 뜻하기보다는 그 현상이 함축하는 성질들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 건은 건(健)에, 태는 열(說)에, 리는 려(麗)에, 진은 동(動)에, 손은 입(入)에, 감은 함(陷)에, 간은 지(止)에, 곤은 순(順)에 대응한다. 우리는 각 괘를 사건들에 대응시킬 수도 있다. 예컨대 리괘는 발산하다, 불타다, 소진되다, … 등에, 간괘는 머물다, 가라앉다, 침묵하다, … 등에 대응시킬 수 있다. 물론 정교한 대응은 어렵다.

또 건은 아버지에, 곤은 어머니에 대응하며, 태는 소녀(少女), 리는 중녀(中女), 진은 장남(長男), 손은 장녀(長女), 감은 중남(中男), 간은 소남(少男)에 해당한다.(일음이양의 괘는 여자들이고, 이음일양의 괘는 남자들이다. “양괘다음 음괘다양(陽卦多陰 陰卦多陽)”) 가정의 성원들이 각각이 차지하는 자리에 따라 일정한 본성을 지닌다는 생각에 입각해 있다. 오늘날 역동화된 사회에는 적용시키기가 쉽지 않다. 다른 대응들도 마찬가지이다. 동북아 사유는 상응체계(system of correspondence)의 성격을 띠거니와 견강부회가 되기 쉽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2교시)

팔괘를 중괘(重卦)한 것이 64괘이다. 전자를 소성괘(小成卦)라 하고, 후자를 대성괘(大成卦)라 한다. 이 중 30개를 상경으로, 34개를 하경으로 한다. 괘의 배열에 대해서는 서괘전에서 논의된다.

www.artnstudy.com

건괘(乾卦

건(乾　　元亨利貞

初九　　潛竜　　勿用
九二　　見竜在田　　利見大人
九三　　君子終日乾乾　　夕惕若　　厲无咎
九四　　或躍在淵　　无咎
九五　　飛竜在天　　利見大人
上九　　亢竜有悔
用九　　見羣竜无首　　吉

계사전(繫辞伝

천존지비(天尊地卑　　乾坤定矣
비고이진(卑高以陳　　貴賤位矣
동정유상(動静有常　　剛柔断矣
방이류취(方以類聚　　物以羣分　　吉凶生矣
재천성상(在天成象　　在地成形　　変化見矣
시고강유상마(是故剛柔相摩　　八卦相盪
고지이뢰정(鼓之以雷霆　　潤之以風雨　　日月運行　일한
일서(一寒一暑
건도성남(乾道成男　　坤道成女
건지대시(乾知大始　　坤作成物

www.artnstudy.com